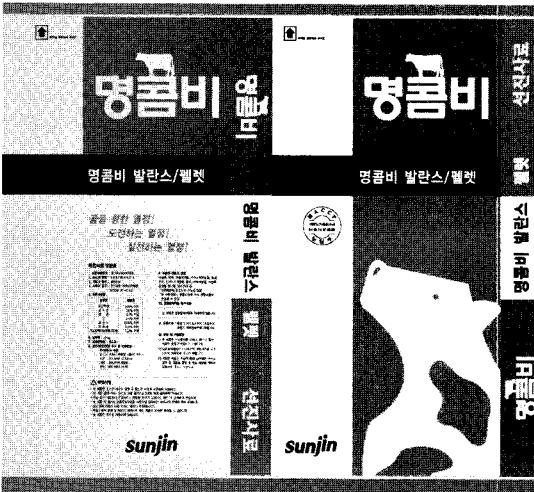


(주)선진

(주)선진, 낙농 신제품 명콤비 출시



(주)선진(대표: 이범권)이 낙농 TMR(Total Mixed Ration) 맞춤 배합사료 '명콤비'를 출시했다.

최근 대내외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낙농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 선진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신제품 '명콤비'를 출시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원료가 상승하고, 환율이 급등하여 사료비가 급등하였다. 이는 사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목장의 생산비가 많이 들게 되면서 수익이 줄고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장의 여러 가지 자구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입 TMR 사용일 것이다. 원

료를 구입하여 직접 급여하는 방법에서 시중에 나와있는 TMR 제품을 구입하여 급여하는 형태로 변하였다. 최근에는 구입해서 먹이는 TMR 시장은 전체 목장 중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인 급여 형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TMR 공장은 전국의 114개(2008년, 축산과학원, 『TMR 생산공장 편람』)로 집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한 각 목장마다 다른 품질의 TMR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각각 다른 TMR을 여전히 배합사료 중심의 급여 프로그램으로 급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TMR과 배합사료의 조화이다. TMR은 TMR 중심의 배합비와 급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중심의 배합비와 급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TMR과 배합사료를 동시에 급여하고 있는 목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목장에서 유량저하, 유지율 하락, 대사성 질병 발생, 번식성적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악화된다면 앞의 두 가지 경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배합사료나, TMR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선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MR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했다. 목장마다 다른 TMR 품질과 특성을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각의 TMR에 적합하게 배합

사료의 급여 프로그램을 달리한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선보인 '명콤비'이다.

명콤비란, '호흡이 잘 맞는 짝'이라는 뜻으로 구입 TMR의 품질을 보완할 수 있는 배합사료를 만들어 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TMR과 명콤비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TMR 맞춤 배합사료'라고 할 수 있다. TMR을 중심으로 배합사료의 급여 프로그램을 맞추는 것은 국내 유일무이한 시스템이다.

특히 명콤비는 오랫동안 낙농가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선진의 낙농사료 '보스(BOSS)' 영양소 시스템을 적용하여 그 품질을 믿을 수 있으며, 최적의 급여 프로그램으로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TMR의 영양성분과 함께 고려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주)선진의 최정기 축우PM은 "선진은 축산업으로 시작한 회사로써 사양가의 어려움이 곧 선진의 어려움"이라며, "신제품 명콤비로 어려운 시장에 선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료'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싶다. 이번 신제품 명콤비가 TMR과 명콤비를 이루듯이, 낙농 사양가들과 선진이 명콤비를 이루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동

주식회사 한동은 지난 3월 11일~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VIV ASIA 2009 전시회참가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세계적인 축산박람회인 VIV아시아는 유럽, 중국, 태국, 인도, 터키 등에서 매해 개최되며 그중 VIV ASIA는 태국 방콕에서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내실있는 전시회이다.

이번 2009년 비브 전시회는 태국 방콕 BITEC 전시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주)한동은 다른 27개 한국업체들과 함께 한국관을 따로 형성하여 한동의 우수한 제품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주)한동의 플로르페니콜 시리즈인 프로샷300주사, 프로샷액, 플로피그 플러스, 바이오웰, 아미톱-S 등 (주)한동의 대표제품과 기타 피쉬제품 등 수산제품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인태 부장은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 방문자수는 지난 2007년에 개최되

있던 2007 비브아시아 때보다는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문한 만큼 오히려 경쟁력 있고 내실있는 바이어들은 지난 전시회보다 더 많았다” 라고 말했다. 이인태 부장은 이어 “세계적 경제 한파속에 한국도 많이 힘들고 또한 동물약품 업계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는 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한동의 우수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더 나아가 수출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꼭 이겨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삼양사

삼양사 사료BU 6-Sigma(SIMS) 결산대회 가져



삼양사 사료BU(BU장:강신우)는 사료업체 최초로 6-sigma(SIMS:Samyang Innovation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2008년 1년간 진행해온 SIMS 과제 종합 결산대회가 2월 20일 (금) 본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종합 결산대회는 1, 2차 SIMS 과제 활동의 주요내용과 개선 효과에 대한 Review와 현재 진행 중인 3차 SIMS 과제 종료미팅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총 17개의 개선과제 발표 중 최우수 과제 1개와 우수과제 3개에 대해 시상 하였고, 이 중 최우수상에는 천안공장의 “Utility 비용 절감을 통한 가공비 경쟁력 향상” 과제가 유류비 절감효과 년 2억 6천만원 이상의 개선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생산분야에 국한되었던 6-Sigma 활동을 삼양사 사료BU는 과감히 영업분야에 접목하여 Samyang Leader’s Club 운영 등 고객 밀착 활동에 대한 Tip을 도출하여 농가에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강신우 BU장은 강평을 통해 회사의 관심과 SIMS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료BU SIMS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각 과제 추진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또한 강신우 BU장은 비록 과제가 종료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향

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과제 발굴과 창조적 개선활동을 통해 방법과 방향을 수정하여 발전 시켜 나갈 당부 하였다.

삼양사 한 관계자는 “이번 SIMS를 통한 원가 절감은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어려운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동조물산

lely로봇착유기 Astronaut A3 국내 17호 로봇이 가동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환이목장에서 lely로봇착유기 Astronaut A3 국내 17호 로봇이 가동을 시작했다. 전체 착유두수 52두 중 트레이닝기간 중 선별된 40두의 개체들이 로봇 착유기를 통해 자유로운 유생산 활동을 시작하였고, 연평균 55두 1,800ℓ의 원유생산을 목표로 로봇착유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번 로봇착유기의 가동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작년 조직된 Lely로봇착유기 컨설팅팀이 설치 전 사양관리 진단을 비롯하여 가동 전 로봇착유방식에 적합한 사료급이 테이블 설정과 충분한 트레이닝의 시간을 거쳐 설치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며, 목장의 유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로봇착유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동안 로봇착유시스템은 도입초기의 사양관리 적용에 있어 전문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환이목장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정밀분석 진단하여 설치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치 전 2개월여부터 Lely사양관리 컨설팅팀이 목장 전반의 사양관리를 로봇착유시스템에 적합한 사양관리의 전환이 이루어져 설치초기의 문제점 해결이 기대되었다.

목장경영이 힘든 시기지만 환이목장의 황교환 대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노동 효율적인 lely로봇착유시스템을 선택, 목장의 경영 유지가 아닌 과감하고 전략적인 과학낙농을 추구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lely[동조물산]에서는 로봇착유컨설팅팀을 만들어 로봇착유시스템농가의 사양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여 온 설치초기의 문제점이나 로봇착유시스템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을 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